

춘천직장선교연합회 뜻깊은 선교대회 성료

- 복음화 11년, 연합정오예배 9년, 성시화운동 주역 -

춘천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병업)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43개 직장선교회인 및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9월 6일 오후 7시 30분 남춘천감리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민병업 연합회장의 사회로 대표기도 박무일 부회장, 강원도교육청선교회의 특별전양과 김주환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의 설교말씀이 있었으며 김부하 장로(전국직장선교연합회장)의 격려사, 정철교 총무의 헌금기도, 김용배 직전회장에 공로패 증정에 이어 성시화운동부장 임택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연합회 부회장 김철수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선교대회는 남춘천감리교회 오병이어와 소양상설교회 열림선교단의 찬양, 김용배 직전회장의 대표기도, 부회장 민정국 장로는 국가와 민족, 직장선교의 활성화, 춘천의 성시화를 위한 통상지도로 인도했으며 박상운 수석 부회장의 기도도 선교대회를 마무리 했다.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광석 장로(한국공항공사는) "직업과 선교전략"이란 주제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김광석은 14년간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본지역 본부에 주재하면서

체결했던 평산도 복음 선교사역에 대한 전략인 "직업과 진도기회"를 소개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이제 관람석에서 필드(Field)로 내려와 구경꾼이 아닌 뛰는 사람, 즉 전도자가 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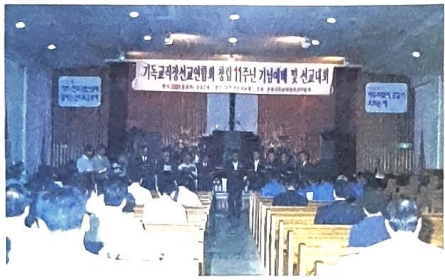
하나님은 내 재갑 속에 24시간을 넣어 주셨고 그분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다며 그 전략으로 명함 빈칸에 성경구절을 삽입(행16:32)하는 명함Ministry와 CD-ROM, 식사Ministry, 자가용Ministry, 출장Ministry 등 가져다나 동료직원들을 상대하는 모든 기회를 선교와 연결시킬 것을 강조해 직장선교의 우월한 잠재력과 비전을 보여 주었다.

동 연합회는 90년 4월 13일 창립하여 43개 직장선교회로 성장, 발전했고 92년 춘천성시화운동을 크게 일으킨 주역으

로 93년 초부터 각 직장선교회와 연합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정오예배"를 드리고 있다.

☆회장 민병업장로(춘천시청) ☎ 254-5377 H.P. 011-368-5377

☆총무 정철교장사(조흥은행) ☎ 240-3233 E-mail: jnet5790@kornet.net



사진촬영 홍종원 집사(순복음춘천교회)

제3회 목사·장로 신앙성장 세미나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화합과 신앙성장을 위해 9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석사감리교회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 강사는 전가희 목사(서울민음의교회)로 "영원한 자

유,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관한 특강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렸으며 세미나 후, 추첨을 통해 5만원권 도서상품권과 상품들을 증정하고 지난 7월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제2회 세미나 특강테일(강사:이용남 목사)을 무료로 제공했다.

성시화를 위한 연합 선교대회 열린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 까지 호반실내체육관에서 성시화를 위한 연합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대회 기간 동안 교회 기관장,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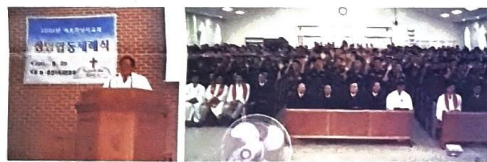
자 초청기도회와 세미나가 열리고 춘천기독교인이 함께 노방전도를 실행하며 저녁 집회 주강사로 김상환 목사(명성교회)를 초청할 계획이다.

육군장병 합동세례 구 신앙화에 크게 기여 - 496명 수세, 군중부 주관 춘천기독연 지원으로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제154단 군중부와 합동으로 사단 신병교육대에 위치한 "여호와빛교회"에서 결신명사 49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날 세례 집행에는 군목 5인과 연합회 소속 목사 12인, 장로 13인이 합동으로 행해졌으며 연합회장 김 목사는 민군 7백여명이 함께한 예배에서 "큰 믿음과 그 결과"란 제목으로 믿으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사가 영통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는 윤재지 군목의 사회로 시작하여 장로연합회장 박승택 장로의 대표기도, 김광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으며 신병 결신자들을 대상으로 세례집례

위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한 사람씩 전원에 세례를 베풀고 수세자들에게 세례증서와 십자가 목걸이를 각각 전달했다. 동 연합회는 미리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격려했다. 2군단 군중부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군복음화 2002작전"을 전개하여 전군 신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춘천기독교연합회의 협력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춘천지역 모든 교회가 군장병 세례와 사후관리에 동참, 분담한다면 전국 신앙화와 지역교회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홀리클럽 전국연합회 총회 및 세미나 개최

Holy Club 전국연합회(회장 신윤표장로)는 오는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22일 까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전국대학생선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회장단을 선출하며 금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홀리클럽 운동은 도시선교회 지향성을 목적으로 96년 춘천에서 시작되었으며 청

주,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서울 등 국내 주요 도시와 미국 하와이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홀리클럽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요한 기독교 운동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장소: 서울 종로구 부암동 36-1 C.C.C.선교회관 ☎ 02-395-0632-3

창간 3주년 기념사

글을 쓰시는 예수님



임택창 목사
춘천성시신문 발행인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요한복음 8장 6-8절을 "쓰시나"란 헬라어는 "그로포우"란 단어인데 이 말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같은 3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어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는 것만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글을 쓰신 것이다. 둘째로 문장 안에 글 쓰신 이의 인격이 온유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면에 공개되

는 글을 통하여 성장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기도 한다. 글을 쓰시는 예수님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글을 쓰시어 영원한 사랑의 인격이 풍기어 있으심을 본다. 셋째로 글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수님의 글을 통하여 돌을 들었던 난폭한 군중들이 자기들의 갈 길을 제시받아 돌을 버리고 바른 방향으로 갔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모름지기 글이란 위 3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진정한 글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춘천 성시신문 창간 3주년을 맞아 신문의 성시화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되다고 본다. 축하를 드리며 또 편집인을 비롯한 모든 기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글을 쓰시는 정신을 바탕으로 성시신문이 발행되어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성시신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성시신문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주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봉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기원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몇 사람의 헌신이나 열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모두가 의합할 수 없는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춘천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힘을 연합하여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마명하고 혹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잡고 30년이라는 이 운동의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큰 역사가 우리의 사역인 춘천에서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을 정복해 가듯이 우리도 춘천이란 작은 도시를 영적인 하나님의 새 힘으로 정복해 가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의 실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시신문이 더욱 더 교회의 바른 정보지가 되고 유익한 신문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식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한국형 바이오밸리 춘천건설 ◇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Bio 벤처기업 성장보육센터

건립 개요

- 위 치: 춘천시 후평동 198-60번지
- 부지면적: 10,672㎡ (3,228평)
- 건축규모: 6,822㎡ (2,100평)
- 지하 1 - 지상 3층 (기업생산실, 공동생산·유통지원실)
- 사업비: 209억원 (건축비 139억원, 장비비 70억원)
- 공사기간: 2001.8~2002.4(9개월)
- 착 공: 2001년 8월 18일(하이테크벤처타운 옆)
- 시설기능: Bio연구개발제품 생산시설
성장보육기능·제품생산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하는 제4의 물결 바이오산업!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 및 고용인구 증대!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한 연구개발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영농산업 기반

web: <http://www.holycc.org>
E-mail: holycc@holycc.org / holycc@hosanna.net / holycc@Godpeople.com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설

시대의 변화 물결에 적극적인 대응력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변화 물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제사문제 등 미신상에 맞섰고 일제 식민지 시절, 조국해방을 위해 노력하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배교된 시절에도 신앙을 지켰다. 70년대 경제성장의 물결에 편승하여 놀라운 성장을 했으며 이제 성장을 멈추고 퇴보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위기라는 말로 교회에 경고를 주고있는 지도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대회의 일면에서 하나의 교회 사교로 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기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성장의 퇴보를 주도할 요소를 다분히 함축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라는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인 선교사 파송으로 교회성장을 피하자

교회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인으로만 주어 주어,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으며 나라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삶을 통해 전도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길거리 전도, 가정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교인수의 감소 현상을 보며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이다. 그 원인은 많을 것이다. 첫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시민생활에서 모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셋째,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집단이

기주의적 삶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도의 황금어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직장인들을 품을 수 있다. 교회는 직장인 전도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은 교회는 과연 몇 회나 되는가? 교회당 문만 열어도만 성도로 가득 차면 시절은 지났다. 먼저 교인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상주하는 소수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대화가 가능한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전략을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 교회 직장인을 잘 훈련시켜 직장인 선교사로 파송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유능한 복음사역자로써 직장인 전도 복무를 감당하도록 한다면 이방인 권위와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유능한 신앙인 생산 위해 교회 문호를 개방하라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른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상호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한다. 우리나라에는 5만여 교회, 1천2백만 신자가 있으며 각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의 길로 인도하며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복음 사역에 유능한 신앙인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 교회만을 위한 교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내 교회 안에서만 유능한 신앙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많은 교인들이 개교회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고 더 나아가 내 교회 우월감에 젖어 타 교회에 대한 배타와 경시가

일반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나는 바로 너는 하나님이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의 편만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능한 신앙인을 육성하는 일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권위와 야심, 배타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 교파와 교단, 크기가 다른 교회를 인정하고 형제교회로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해 나가는 신앙사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손을 마주 잡자.

충청 월드비전 PC방 무료 이용

월드비전 충청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은순)에서는 복지관 1층에 10대의 컴퓨터를 보유한 "월드비전 PC방"을 마련했다. 초·중·고·대학생, 일반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춘천시민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월요일 ~ 금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0시 까지 운영 / ※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 까지 운영 (연말연시 휴무) ※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 ※ 중·고·대학생, 고등학생: 오전 9시 ~ 오후 8시 30분 까지 / ※ 대학생, 일반인: 오전 9시 ~ 오후 10시 까지 / ※ PC방 이용관련 문의전화는 ☎ 254-7244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장 방승헌 목사 취임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는 9월 18일 오후 7시 동 협회 예배실에서 지역 교회 목사, 강도와 회원들이 모여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선임지회장 방승헌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산 은혜와광교회 부목사, 한국강해철교구 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장, 춘천교회협의회 협동목사, 서울 중앙교회 협동목사, 교회와 멘토링(C&M) P/D 사역을 하고 있다.

교계 단신

- **충청중앙성경교회(윤철중 담임목사)** 제3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0일 시작하여 18일(화)까지 "성경교회와 교단총회를 위한 9월간의 기도"를 주제로 열린다.
- **갈릴리안교회(최영준 담임목사)**는 9월 9일부터 5주간 갈릴리안예배교회를 제1기 예배교회를 개강했으며 16일 교회창립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매달 세번에 화요일 본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 ※ 무료이발봉사: 신사유동 309-3번지 http://www.ccf21.org/gallilee
 - ※ 갈릴리안 고품질제빵 배달판매: 1번=3,800원 주문전화 ☎ 256-5922
- **사순절영양교육교(최성도 담임목사)**는 결혼예배교회를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4주 동안 개최한다 (강사: 최성도 목사(갈릴리안교회), 최성도 목사, 김성경 사모). 오는 9월 22일 성경교사(장세기~여우수아)를 실시하고 성직 유수자에게는 생애와 무상으로 관련지를 선물할 예정이다.
- **춘천동원리교회(장성문 담임목사)**는 매주 수요일 명지대학교에서 사탕사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주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춘천성도장교회(최은희 담임목사)** 창년부는 오는 10월 6일(월) 오후 6시 본교회 2층 분당에서 찬양제를 개최한다. (TEL. 254-5185)

북한에 자전거 보내기 연말까지 모금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강원도기독교연합회가 추진하는 '북강원도 사랑의 자전거 보내기' 모금 행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교회의 후원금을 수시 접수한다. 8월 15일 1차 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수입금은 차전거 500대분으로 이중 춘천지역에서 276대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참여도가 전세적으로 지조한 실정이다. 자전거 보내기 사랑나눔본부(하비부) 본부장(제주시)에서는 당초 목표액이 자전거 3천대분(1대당 10만원), 3억원이여 북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개선을 위해 모든 교회와 1대 이상 후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춘천에서 모두 23개 교회와 동맹했으며 정교교회(8) 갈리교회(6) 춘복교회(4) 성경교회(3) 침례교회(2)이다.

문의: 본부장 하비부(충청기독교교회) ☎ 435-0313 / 011-376-5645
준금계좌: 농협 301307-51-060105
예금주:김동훈(춘천기독교연합회)

빛의 사명 다하는 신문이 되기를



박승혁 장로
충청기독교보편집장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엿그레 같은데 벌써 3주년을 맞이하는 충청 성시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일을 추진하며 소식지를 만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3주년을 맞이하는 성시신문이 춘천 시민이 기다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소식을 전하며 주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시신문 변화를 일으켜 구원함을 받고 소식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지는 한층 성숙되고 발전하여 이십일 세기를 앞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복과 바램인 성시신문의 한 몫을 잘 이루어가는 몫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성시신문이 되어서 크게 성취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의 큰 역할을 기도하며...



김공일 안수감사
현만대학교 직장인교회장
소양장교회

한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춘천성시신문 창간 3주년이 되었음을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의 수와 믿음-소망-사랑의 수와 간하여 이의 교파를 초월하여 성도의 3개 생활영역인 교회와 가정과 가정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결속시키며 춘천 도성이 거룩하고 되어드리는 문신사회의 머릿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내고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춘천 도성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더욱 연합하기를 위하여 제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의 심정으로 도성의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는 소망을 그려봅니다. 성시신문의 큰 역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한림대학교 직장인교회(예루살렘아) 예배가 매주 월요일 정오에 대학본부 지하에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흥천교계 소식

- **충청신로회 3/4분기 헌신예배**
충청신로회(회장:김자경,충청신로회사무과장)는 9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흥천 서부감리교회(담임:신규호 전도사)에서 3/4분기 헌신예배를 드리고 본교회 신학생 최미용,미정 자매에게 학급 보조로 각각 20만원씩 전달하기로 하였다.
- **충청민안교회(담임:김영남)**는 9월 17일 오전 9시에 서석민 체육공원에서 전교구 화합과 단결을 위한 체육행사를 갖는다. 체육행사는 200여명의 교우들이 모여 다채로운 2개팀으로 나누어 주일학교 학생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며 유치부부터 3학년자까지, 65세이상 노인의 큰공물까지 등 전교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푸짐한 시상금,상품권 추첨이 준비되어 있다.

(정신) 6월 성시신문 1면의 (한국교회) 춘천지역 연합회 예배(창조) 순서 중 (창조) 회장을 세제에 최영준 담임목사다.

MANNA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눈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칭찬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민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명예는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겸손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기쁨은 무언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 즉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고르게 사랑하십시오.

DTC 예수제자훈련코스

1. **대상**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
2. **기간** 2001년 9월 20일-12월 27일 까지(15주간:추석주간은 휴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까지
3. **장사** 다수의 예수전도단 훈련 장소
4. **강의내용** 하나님 음성 듣는법, 영적전쟁, 선교, 중보기도, 내적치유
5. **비** 25만원-교비(책3권), 식비(점심) 포함
6. **준비** 성경, 필기도구, 사모하는 마음
7. **원서교부 및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033)252-1128
8. **진료인원** 신학생 30명
9. **등록** 원서 제출후(사전2장) 신청비 5만원을 입금 하신편 됩니다.
구좌번호: 농협 301813-52-055647 예금주:조계순

후원: 충청성서화동본부, CCF(충청신도모임)
주관: 사비인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화요일은 예수전도단과 중보기도 합시다!

“언 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9시 까지
“어디서: 동부강교회 구 분당에서 (미도파교회지 앞)
“누구와: 중·고·대학생, 대학생, 일반인 모두
“문의는: 252-1128 예수전도단 행정직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가 운영하는 “화요일은”은 춘천에 온전한 예배자와 중보자를 일으키고 원수의 세력을 쫓기 위해 뜨겁게 찬양하며 중보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왕의 자녀들(King's Kids)

King's Kids는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제자훈련으로 4월 한국 예수전도단에서는 92년부터 매년 춘천과 전도예배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춘천은 춘천에서 실시하는 3번째 춘천으로서 감배위원장, 간사, 소그룹(2인1조) 및 중보기도(2인1조)의 시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대상** ① 예수님을 사랑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②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훈련에 대한 본인이 의사가 확실한 사람
③ 부모님의 동의가 있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람
④ King's Kids의 모든 훈련에 전적으로 순종할수있는 사람
2. **기간** ① 토요일: 2001년 10월 13일 ~ 2002년 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8시까지 (예배, 강의, 소그룹)
② 전도예배: 2002년 1월 9일 ~ 1월 26일까지
③ Youth Camp와 국내 또는 해외 전도여행
3. **원서 교부 및 접수** 7월 23일 ~ 9월 21일 (변경일자는 개인적으로 통보)
4. **훈련비용** 접수비 10,000원 / 토요일마다 150,000원
해외 전도여행 1,500,000원 (사정상 변경가능) / 국내 미정
5. **원서구입 및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033)252-1128
6. **주최**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청소년 사역 (대표간사 김봉자 목사)

남춘전감리교회 심령 대부흥회

- “일시: 2001년 9월 17일(월) ~ 9월 19일(수)
- “장소: 남춘전감리교회(유진형 담임목사)
- “강사: 장영희 목사(서울신대제일교회 담임)
- “문의: 244-8881-2 남춘전교회사무실



춘천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9월 25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강교회
설교: 신성복목사(영인교회) 사회:오만대, 한국교회재단직장인교회
기도:고독득, 춘천월드비전직장인교회

춘천기독교직장인교회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전성영 033)250-7110
2000~2001년 연립회비납부: 조흥은행 515-04-574117 예금주: 안영자

